

長恨夢

中編

卷之二



8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cm
Inches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장한몽

중편목록

長恨夢

中編目錄

대일장

취무독촉

(債務督促)

대이장

자탄

(自歎)

대삼장

오호괴구

(嗚呼崎嶇)

대사장

병실

(病室)

대오장

슈누불견

(垂淚不見)

대륙장

투신

(投身)

대철장

적원

(積怨)

대팔장

괴화

(鬼火)

登錄番	3199
分類番	
圖書番	

장한몽 중권 (長恨夢 中卷)

데일장 치무족독 (債務督促)

출흥을 못익의여쭙창을반기하니저녀이슬북은씻나라드느범나뵈야네괴상조흔세
 라야참안기프른버들왕리향논씩고리야네모양묘홀세라고기를건든숙여방중을도
 라보니금준미주는출석이렁동향고옥안미인은츠평파가은근한다유정흐스름무정흐
 물건이출흥에흐씩겨워티평괴상이완연건만아지못게라이봄이장련이라절기도니
 물니라과락이장구랄라니일도니물니라

장

한

몽

1

장좌성(張佐性)이라하는스름은전일에 시고을잇슬씩이던지 서울을나와 학교
 에 다닐씩이던지 성품이 온공정직(溫恭正直)하여 봉우간에도 일컷던스름이
 라학교를맛친후에 엇더흔희스에 근무(勤務)하여 상당흔 보슈(報酬)를 받
 는터이라 그러나 오히려 습익원의 돈을 고변(高邊)으로 엇어쓰고 항상 처권
 자에게 줄니여 골난맛논일은 그 친구되는 여러스름들도 모다아는바이라 그
 러나 여러스름은 무슴연교로 그와갓흔돈을 취하야씻는지 리유를 아지못하엿
 더라 엇더흔스름은 친구와 교제하노라고 진빛시라는 스름도잇고 엇더흔스름
 은 장가들제 진빛이라고하야 여러가지로 말하느스름이잇스나 그실상니용을
 탐지하야보면 실상은 장좌성이 죽점으로 씻든돈이안나라 부득이흔 스정으로

장

한

몽

인간야 었더흐스름의 치무에 보증으로 연티치무(連帶債務)에 인(印)을 찍엇
 더라 그후에 치무자는 치무를 리헝홀힘이 업서지고 치권자는 다만 연티치무
 자장좌성을 독촉하야 곤난할경우에 잇는것을 다만 스정을 자서히 아난스름
 은 그친구에 신장우(申章雨)와 조병권(趙秉權)두스름뿐이라. 티범(大凡) 빚산
 변리라하는것은 목마른스름에게 물피는것과 갓흔것이라 만일 목마른자가 안
 이면 달개녀이어 구항자아나하는니 목마름이 심흔것에 일으려서는 조곰도스
 양치안이하고 흘잔물이 그같은옥노반(玉露盤)에 이슬보다 더욱만흐나 괴갈
 이심하야 전후를 도라보지 못하게되는스름은 능히이와듯은 무전 티금이라도
 쌀과갓치녀이어 스는스름이 잇슬지라 처음에는 비록 옥로슈(玉露水)와갓치
 알고 사서먹는 스름이라도 그후에일으려서는 슈치구멍에 찍은물보다 더욱더
 러운물인줄을 서다르나 임의지은일을 뉘웃치나 밋칠곳이업고 나중에 일으려
 서는 살을버히고 피를짜서 그옥로슈(玉露水)에감을 감지못하면 안이될지라.
 슬푸다 이세상에 가장몸슬넘은 고변으로 돈노이하는 스름이오 그와갓흔고변
 을 달개녀이어 쓰는놈도 더욱 몸슬스름이라 그러나 부득이흐스정으로 장좌
 성(張佐性)은 이렇듯흐듯하고 심흔치무를 몸에 지고 날노 가혹헝형벌을 밋는
 것은 다른스름으로인하야 이렇듯불헝음에 빠졌스니 호을노 근심하고 남을원
 망치아나하는 스름이라. 이날 신장우(申章雨)와 조병권(趙秉權)은 장좌성(張

장

한

몽

佐性)의집을 츠와던터이러라. 마음을 서로허락하는 세스름은 술상을버리며
 늦코회포를 서로이악이흐다. 신장우는 술잔을 서너너뒀번이나 거울은후에불
 고더운괴운이 얼골에 가득히올나 조괴에 잇는괴염(氣炎)을 호을노 도로(吐
 露)호며 조병권과 장좌성도 술이반취나 되었는디 서로권하며 서로마실 썩에
 이자리에논던하에 다서영웅은 싸로업고 이세상에 두려운것도 또흔잇지아니
 할것갓다 그러나 호을노 주인장좌성은 절거워하는스이에도 간사히 심란하야
 할다. 그러나 그두스름은 주인의 곤난할심스를 쯤서히 아난고로 곱타여 못지
 도 안이하고 감히히 절거움을 구하야 호로노동안을 절거이지너려함이러라.
 이썩에 밋그로서 사나희하인할아이 들어오더니 주인장좌성은 여러손과 할가
 지로 휴안을버리고 잇슴을보고 이리기웃저리기웃하며 말을 할듯하다가 손이
 잇슴을 쓰리는 모양 갓흔지라 장좌성은 무삼일이 잇는가하야 밋그로 나오며
 「니 왜 드러왔니 무삼일이잇니」그하인은 목소리를 나작이하야 「서강 김저연
 이집에서 또왔셔요」 「지금 왔셔잇다는말이냐」 「지금은 손님에게시니서
 다음에 오라고하야도 도모지듯지안이하고 오날은씩 봐와야만헝겔다고 가지
 안코 문스간에 서셔잇셔요」 장좌성은 그하인의말을 듯더니 홀연 눈살을찌
 푸리며 불쾌흔괴석이 미우에가득하야 박그로 나아가보기도 어렵고 안이보기
 도 어렵고 좌우가는처하야 다만머리만 글썽잇다. 방에안져잇는 두스름의손은

말서 주인의 괴식을 살피어 보고 마로 향하여 녀다 보며。「여보게 웨그리나
 무슴일이잇나」장좌성은 허허웃고 방으로 다시 들어오며。「하필오날 빗장이가
 또 왔네 그려 취리하는놈중에 도어대셔 도모지 말못하놈을 엿어만나셔 경위
 도업고 인스도업고 돈밖게는 아모것도 아지못하는 찰거리야」그러면 엿더
 케든지 슈허 말을야셔 보니까나 그려」여간말을히셔 듯고갈놈갓흐면 좃겟
 지만은 한번만 그놈에게 붓들니기만하면 돈을니기외에는 당초에 가지아니하
 니사 그리셔 걱정이지 오날까지발셔 몇번을왔는지 모르는데」신장은 술과
 운이 얼골에 알맞치을나셔 남하고 말하기 조을만한다。「그렇치만은 좌우간엿
 더케든지 말을히셔 보니까야지 안이하나 이리로 불너드려셔 스이에문을 닷고
 웃간에서 이야이하야보니까다 정이그놈이 안이듯고 가지안이하면 우리라도
 조력을야셔 쯤계」장좌성은 머리만 득스글그며 얼골을 찌푸리고 혼참이나
 티답이업더니 흘일업는모양으로 종용이 그하인을 눈짓하여 드러오라말을일
 으고 스이에잇는 장지문을 듯치고 장좌성은 호을노 웃간에안주 빗장이의 들
 어오기를 기다리고있다 쯤곰잇더니 모직두루막이에 중절모쓰고 손에는 조고
 마흔가방흔아를들고 런던이 들어오더니 티스들우으로 올라스며 방안에잇는
 주인의얼골을보고 가벼히 인스한다。장좌성은 여지로 반가이하는듯이 일어나
 인스하며。「어서 들어오시오 이럿케 여러번 슈구하고단이시니 너모불안하구

료」런만에 말씀이올시다 슈구가무엇이온잇가 니일노 니가다니는것을……」
 하며 웃는얼골도 보이지아니하고 인스도다 맞치지못하야셔 묻져 돈이약이
 부터 시작한다。「글세 요전부터 말씀흔것은 엿지하실터이온잇가 초일피알하
 고 안이하여쥬려구만하시니 그리히셔야 돈쥬고 밧을스름이 어티잇겟소 날마
 다와야 일상안이게시다고 썩기만하시더니 대관절 엿지실의향으로 그리하시
 오」오날은 무스일이잇든지 그저갈수업소」장좌성은 속으로는 분이 불썻갓
 치일어는 빗진죄인이라고 간신이참고 음성을 누죽이하야。「요전부터 로형
 이하시는 말씀은 정말 니가 대답 흘슈가업소 돈으로말 하면 전수히 니가
 쓴돈도안나오 친구에슈형에 니가 보증만하엿슬 스름인디 지금와셔는 그치
 무를 전슈히 나다려지고셔 슈형도 니슈형으로 다시 써셔들나니 아모리 친흔
 친구간에 일이라하기로 여지의일을 할라고하면 니가엿지 허락을 할수가잇소
 아모리 빗노이하시는 양반이기로 여지의일을 가자고 스름을 일엿게서리조
 르면 엿지하지는말슴이오」이씨에 아리스간에서 숨도크게 쉬지안이하고 안자
 있던 신장우와 조병권은 죽은다시 서로 말이업셔 조용이안자셔 친권자와 친
 무자가 서로 슈작하는이약을들듯고 잇더니 조병권은 스이에듯치여잇는 문틈
 으로 여허보아 동정을살피다가 홀연아리스목으로 얼푸시 나려오며 신장우를
 향하여 가마니말을한다。「아여보게 빗바드러온놈이 나는 누간가하엿드니 우

리학교에 갖치단이던 리슈일일제그려」 신장우는 그말을듯고 잠씩놀나는모양으로 눈을 둥그렇게뜨며「그리 정말인가 바로 리슈일이란말인가」「이스름아 문틈으로 쯤셔이 좀 넘어다보게나그려 너가잘못보고」 하는말인가 전부러 리슈일이 학교에 나온후부터는 취리관으로노도라 단인단말은 들엇지만은 식서곳치 고은성품으로 빛노이를 엇지하는가 알슈업는 말이라고 밋지이니향엿더니 오날보니셔 정말 그말이올른것일제」 신장우는 오히려 의심하기를 마지 않던지 고기만 쓰역〈〉 하며 너렴으로는 무산 결단할바가 잇는것곳치 엽혀치여노앗던 술상을 잡아다리며 술 두셔너잔을 흘번에연향야 기우리고「그러나 여보게 이수일이가 온것이 오히려 다형일제 이전에 서로 친근이 지닌던 덩분으로 우리가 저리로 나아마셔 흘번담관을 향여보제 우리말음면은 제가아무리 도척곳치 되엿드티도 설마못홀다구야 할슈가이나 이번에 다형이그회를 잘만났스니 좌우간 슈인의 처무를 엇더케든지 결말을넘여주제 리슈일이웃흐면 조곰도 겁날것이업네」 하며 웃을 다시곳쳐입으며 허리찌도 돌나미인다 조병권은 샅샅우스면서「바로큰싸름이나 허러가는것곳치 몸단속을 향네그려」 슈일은 힘도 드리지아니향고 조르노말노「결단코 당신을 괴로이 조르노라고 하는말슴이아니라 변리는 주지아니향시고 명의환셔(名義換書)도 향야주지안

이향시니 여간 돈양가지고 취리향는놈이 벗디여 나글슈잇슴닛가 오날은 좌우간 결말을 넘어주셔야 향겟슴니다 명의환셔를 홀다향야도 당신찌 물너뵈자는것이안이라 당신의 명의만 빌너여줍시스는 말슴이올시다 당신으로 말슴향여도 친향친구의일에 그말일도 못보으 주시겟다구야 말슴이 됩니가 그말일은 디답향실듯 향오이다그려 우리가 당신은 신용향는싸름으로 당신의명의만 빌너슈실것곳흐면 제가집에 도라가셔라도 슈인에게 디향야셔 흘말이 썩々향오이다 그러치만 일후에 당신의 명의로잇스닛사 당신에게 물너겟다는싱각으로향는 말슴은안이올시다 그러하니 오날은 정말귀정을 넘어주십시오저도 정말 단이기가 귀치안슴니다」 장좌성은 디답할바를 아지못향고 우둑하니 안자잇다가「혈수업소 그것은 정말혈슈업소」그리케 못홀다고향시면 저의는 엇지향라는 말슴이오닛가 정」 그리향시면 혈슈업는일이니사 당신 신분에관게가 되는일이잇슬지라도 최후슈단을 흘슈박게업슴니다」 최후수단이라니 엇지향겟다는 말이오」 무론 집행을것 안이온닛가」 장좌성은 억지로 얼골에는우슴을 썩엿스나 심중으로 그말이 반갑지못향야 다소간 겁잇는모양으로 웃슈얼만 좌우로 비비고안자셔 대답이업다」 삼백원쯤되는 돈으로향야셔 당신의 명예를 상케향야 전정에 방허가 되게향는일은 저의도 결단코 향고심혀셔향는것이안이올시다 만은 제가 청구향는말슴을 들어주지 안이향시면 그셔야당

신보다 더 혼양반이라도 혈수잇슴닛가 연고로 일이 다 혼는것은 온편(穩便) 하
 개 혼는것이 피체에 리익이 안이 온닛가 다시 혼변 생각하야 보시지요」글제는
 도 이디서 지던지 절디져 명의환셔를하야 쥬지 못하겠다는 말이안이라 로형의
 요구 혼는말은 본전슴빅원에 일년동안 변리를쳐서 모도구심원을할하면 슝빅구
 심원하고 그외에 가변이 일빅철심원 멧심전이라니 모도함하면 오빅원돈이
 나 되는데 고것을 흡히서 오빅원중셔를 내명의로하야 들는니 혼폰도 나는쓰
 지안이 혼돈을 변상가 변을하야서 나 다려표를 써서 노라니 너 모어글하 지안소.
 노형도 니 몸이 되여서 쥬싱각을 하야 보시요 한폰도 쓰지 안은돈을 표를하야 노
 으라면 엇더하겠소 누구는 조와하겠쇼」슈일은 텃정을 치여다보고 링소(冷
 笑)한다. 장좌성은 은근히분함을 참지 못하야 슈일의얼굴을 엽호로흠이여 보
 고있다. 장좌성은 혈슈업는 경우를당하야 엇더 혼스름의 보증을섯더니 불힝
 이 그스름이 처무를 리형치안이 혼연고로 이날이와 혼 혼난을 당할뻔하니라
 명의환셔후에 다시 엇더 혼스름이던지 보증을세우라하야 남의치무를 조기에
 개로 넘기고 혼다 그러나 조기의실척으로 남을위하야 보증을허물로 이경유
 를당함은 오히려 당연하려니와 네가 만일 증셔를하야 못코 남으로하야 금 보증
 을세웠다가 그스름이또 혼 나와 혼 혼난을받으면 엇지하리오하코 슈일의무
 리 혼청구는 거절하엿더라 그러나 그청구를 시형치 아니하면 당장에 변리라도 쥬

어야 될것이여늘 그도 창졸에 시형키어려우니 이는진소위 진퇴유곡이라. 장
 좌성은 그물에 걸니인 석몸과 혼하야 혼치압호로도 몸을뛰어나가기도 어렵고
 금부처스 혼 혼한 혼빛장은 목전에 안자셔 펄박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가슴
 속에는 분그팅중하나 감노이불감노하야 터져나오는 노기를 간신히진정하며.
 「내가 온드로 한 혼일도업는디 엇지하야서 오늘와셔 지축이 이닥 지심하단말이
 오.」지논들 스무날이 한 혼날인디 한이넘이셔 말셔 멧철이지니도 보너지아니
 하니서 아모날이던지 지축할 권리가 잇지안슴닛가」장좌성은 그말에와락분이
 더욱치미러 올라와셔 두주먹을 잔뜩 쥐이고 별々 썰다. 「무엇이야 괴한이지니
 엇스니 아모날이던지 지축할 권리가 잇다」 권리라 혼는것은 다 무엇이야 쥬져
 님게 그러면 엇지하야서 괴한날에 돈을 못닉이니 연괴료(延期料)라고 썰로닉
 이라하야 그돈은 엇지하야 바다가고 지금와셔는 다시 썰 소리를하오」「언제
 내가 연괴료라고 밧엇슴닛가 괴한날돈을 쥬지 아니하니서 공연이왔다 갖다 혼
 인력거사과 그당일점심값으로 밧어간것이 지요 만일 연괴료로 밧아와드라
 도 그날당일연괴료로 밧은것이 지 그돈 밧앗다고 멧철이던지 찰고잇겟스닛가
 싱각을 하야 보시구료」「그말은 엇더케 혼는말인지 모르겟소만은 요전에 괴한
 날이 되엿슬썩에 변리중으로 우선심원만 쥬마하닛가 로형말이 변리중으로닉
 일것이 아니라 오날돈을 다닉지 못하겠거든 멧철더참아 쥬터이니 연괴료로돌나

고향에서 밤이 가지이니 향옛소 그리고 일전에 또 심원을 바다 못지...」 「네
 그리습니다 돈은 정영 밤이 못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한 것과 못 처 그 돈은 그 당일
 에 공연히 왕리훈 인력거 삭과 그 날 점심값으로 밤이 못습니사 그 날 향로만 지니
 면 그만이니 오닛가 그러하니사 그 날 향로만 지니면 그 잊흔 날부터는 다시 저축
 하여도 당신이 할 말씀 습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왕 지낸 일은 말하야 무엇함닛
 가」 「엇지 하야서 지낸 일을 말하지 말나 향년 말이요 로형은 너게 허로운 말은
 향지도 말나 향년 말이요 그러도 나는 말이니 할 슈도 습소」 「글세 오날은 그 일
 로 온 것이이니니사 그 말씀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에 돈을 달나 향년 말도이니니
 슈표나 당신 일흥으로 못쳐 써서 주시구료」 「장좌성은 분기가 마우에 가득히 올
 나잇스며」 「암만 하야도 나는 할 수 습소」 「그러면 돈도 못 주시겟소」 「습스니사
 못 주겟소」 슈일은 홀연 노기가 등등한 눈으로 장좌성의 얼굴을 쳐다 보고 잇
 다 두사람은 서로 분을 먹음고 더 하야 안저 잇슬 썩이니 조곰만 다시 쳐동향는
 롬이잇스면 구라향는 지경에라도 일을 뜻한다 그 썩에 홀연 스이에 닳쳐여잇던
 장지문이 부서져 열니는티 슈일은 눈을 들어 우연히 쳐다보니 신스 두사람이
 서서 드러오는 지라 조용이 두사람이 안저 비밀히 이약이 향는 곳에 외인 두사람
 이 흥기도 업시 스스로 드러음은 필연 무산일이 잇습이라 하야 슈일은 다시 자
 리를 못쳐안지며 말이 업는티 두사람은 두루막을 헛치고 좌우로 갈나안지며

천하히 입을 열어. 「악가부터 문틈으로 보노라니사 얼굴이 티 단이 악더니 지금
 저서이 본즉 조네가 리슈일이 가 안닌가」 조병권은 신상우의 말이 못치며 슈일
 을 향하야. 「그 동안에 얼굴이 엷지나 변하여졌는지 나는 처음에는 몰나보았
 네그려 참우리가 얼마만에 만나는가」 슈일은 두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얼굴을
 조셔이 살펴 여보다니 비로소 그사람들이 엷더흐사름인지 쳐다랐든지 홀연얼
 골이 붉거지며. 「이것참 웬일들이시오 나도 누구 신줄을 몰나구료 오리사 동안
 을 우리가 못만났지요 만은 별연고들은 업스시오」 「전일에는 서로 벗을향던
 터이러니 이날은 홀연 슈일이 가 두사람에게 더 하야 극진이 존디함을 보고 조병
 권은 또 혼조기도 언스를 못치여. 「그러서 그동안 조미가 엷더하시오 드르니사
 요스이는 상업에 종사를 한다지요 그러서 돈이나 만이 버리게시오」 슈일은 천당
 을 향하야 허우스며. 「모으기는 무엇을 모호겟소 저각이 업서서 이것을 시작
 하였지요」 하며 조곰도 붓그러운 괴석이 업슴을 보고 두사람은 은근히 괴가막
 히는 모양으로 신장우는 슈일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보며. 「돈만싱기면이
 야 무엇을 못하겟나 그럭치만은 조네 못치성품으로 이런 영업을 히가는 것이 용
 혼일일세」 「로형 말씀이 올은 말씀이오 사름으로는 할일이 못되지오」 조병권은
 비웃는 모양으로. 「그러면 조네는 사름이 아니라 향년 말인가」 「나 못흔놈이 무
 손사를 감계가겟소」 「모리성각 하야도 이제 상에서 사름노릇을 할슈가 업겟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올밖에 사름노릇까지 그만두고 나와서 이영업을 시작하였소」 신장우는 쌀々우스며 「그러나 여보게 이전에 저네가 정말스름으로 잇솔씨에 우리가 한가지로 정다이지 너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사름이 될 생각을 할 여보게나 그러」 슈일은 진짓 못드른체 하며 다시 슈인 장좌성을 향하여 「공연이 쓸티업는 썰이 약이 한노라고 시간만 느저가니 어서 슈형에 당신도장이나 써어 주시오」 하며 슈일은 가방속으로서 슈형지(手形紙) 훈장을 너여서 손에 들고 먹과 붓을 너여 금액을 쓰고 저한다. 엽해안 저잇던 신장우는 슈일의 붓티 잡은 손을 쥐이고 「여보게 잠간만 참게 그 수형은 엷더 한사터으로 쓰는 것인가」 슈일은 쓰기를 멈추고 저서 흐리유를 간략히 설명하였더라. 「응을치 그 말다 알으듯겟네 그러나 너가 말한마디 할 것이 잇네」 하며 신장우는 권연훈기를 너여 피어물고 세계전정에 강화단판이나 할듯시 점잔이 다시 저리를 못쳐안지며 「여보게 슈일이 슈인 장좌성의 처무로 말을 하면 모조록 특별이 좀 하여 주게 저네도 이 성서 한번만 용서 하게나 그러」 슈일은 모티답이 업시 감안이 안저 잇다. 「그리 엷더 할가 여보게 슈일」 「용서를 할라니 엷더 케 하는 말슴이오」 「가령 말하면 저네게 허만 가지오니 할 것 같으면 조금 허달나는 말일세 저네도 다 심피 이 슈인의 빛이라 하는 것은 실상 저기가 쓴 돈도오니 오 남의 보증 훈시켰다」 그 스름

이 인히 내게 되지 못하니사 돈준스름으로 말을 하면 처무저 너지오니 하면 보증인에게 밝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만은 우리 마 그것을 구 하여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간에 정의로 이 슈인의 스세를 생각하면 티단이 원통하고 마엽다 하는 말일세 그러나 우연이 저네를 어긋서 맞았스니사 우리 마 스이에 들 어서 피츠에 허롭지 안도록은 하고 저하는 마음으로 이전우리 친구 저네에게 여지의 일이 저만은 청을 할 자고 이리 하는 말일세 드르니사 본전شم빅원 에 티하여 서 정말 돈 쓴 스름이 그동안에 변리로 이 빅철십원을 내여 노앗다 하고 이 슈인 이 또 구십원 돈이나 내엿다 하니 그 만 하여도 벌써شم빅십원은 저네 마 빛이 간 것 이 안인 마 그리 하면 저네는 그 만 하여도 허되지는 니 할 것 터 그러 하니 이 슈인에게는 본전شم빅원이나 빛이 마도록 하게」 슈일은 티답도 업시 다만 탄식 하는 모양으로 웃기만 할 뿐이라. 「그런 케 하면 이 슈인은 슈빅구십원만 너여 늦는 세음이오 저네는 전후도 흠이 룩릭십원 빛이 마는 것이 니 마 그리면 저네는 손히 날 것도 업고 슈인은 흠도 써보지도 못하고 슈빅구십원을 물어 늦는 것이 니 모리 취리 하는 스름이 기로 사정이야 모로는 법이 잇나 조만나 생각 하여 서 피츠에 좃도록 하게」 「그것은 당초에 말이 안되니사 들을 수 업소」 하며 슈일이 두 스름의 말을 귀치오니 녀이는 모양으로 다시 도라다 보지오니 하고 슈형에 금액(金額)을 쓴다 신장우 조병원은 노흔눈으로 그 모양을 이윽이 보고 잇는 티

슈일은 수형에 년월일까지 쓰기를 맞치고 장좌성의 압호로 향하여 노으며. 「여
 괴 성명. 띠에 도장호. 찍어 주시오 괴호는 심륙일도 하였습시다」 두 사람은
 슈일의 방약무인하게 행동을 가지고 전일 친구에 권하는 말은 귀박그로 듯지도
 아니하고 돈만가지고 이익이 없을 심히 미웍게 보았다가 다시 괴를 악이 지 못
 할야 음성을 높히고 눈을 부릅뜨고 신장우는 슈일의 압호로 갖가이나 아가 안지
 며 「감안이잇서 도장이다 무엇이냐 네놈은 도모지 돈세음만 흘출아랏지 천
 구의얼골은 조곰도 도라보지아니하는 무례한놈이다 무슴영업이던지 영업하
 는놈은 제저격을 생각하여서 누구에게든지 공손하여지 도적질을 하다 쉽
 하는 부정한영업을하면서 으날갓치 구일친구를 만나야 조곰도 붓그러운괴
 은업고 도로혀 승전고나 올인갓갓치 거만을부린단말이나 돈양가지고 빗노이
 하는것이 큰명예나 되는줄도 알고잇의 사람이 붓그림을알아야지 슈표한장을
 가지고 장호것이는 되는듯이 우리까지 멸시를하라고 네가그리하여 이모양을
 빅락관(白樂觀)이나 보앗드면 쇼홀것을..... 네놈갓치 증승갓치 마음이변호
 것을 그리도 빅락관은 역시전일의 리슈일이로만 생각하교일전에도 나를맛
 나셔 네소식을못드러서 궁금궁다고하면서 눈물을흘니면서 천아오죽인것보다
 도 더설다고 심난하여서 못견디어하더라 이런말을듯드리도 조곰이라도 스름
 의량심이잇스면 세달한일이 잇슬터이지..... 우리가 아모리하여도 너갓흔놈

에게 손히는 입피지아니할터이니 오날은 아모소리말고 그티로가거라. 「발을
 것을 밟아야지가지오 당신네가 그닥지나 장좌성씨의일을 보아주시려 할거든
 장좌성씨슈형에 당선두분은 보증을 서주시면 오날은그티로 가겟습시다」 신
 장우는 「그러면우리가 보증하마」 하며 장좌성의압해 노혀잇던슈형을 솔기가
 고기쳐여가듯이 와락잡어다가 네조각 다섯조각에 찌져버리고 다시 슈일의역
 살을 잔득흠기여잡고. 「이놈네가 이맛이 었다하나 썩々흔놈 갓호니..... 그리
 도이러케 얼골을드려다보니씨 이전에학교에 갓치단일석에 서로지너던 모습
 이 남앗구나 마음은 증승이되였셔도」 조병권은 말니는체하며 「여보게 리슈일
 우리가 이전정의로 말하기로 즈네에게 히로운말이야 권하니가잇나 그져듯겟
 노라고 디담을하게」 슈일은 얼골에 상기가되여 목이매여 목소리를 간신히너
 이며. 「천구의 정의는 정의요 돈은 돈이지.....」 「그리도 이놈이 불이되지가
 못할이서 이런소리를 하는게지」 하며 신장우는 바른손을들어서 슈일의 왼편
 뺨을 목이도라가도록 한번짜리고 다시 가슴을 쥐며으로지르리 슈일은 방만한
 가운티 쓰러졌다 신장우는 슈일을 업쳐여놓고 손으로덜미를 누르며 무릅으
 로 허리를받고. 「이리도 또다시 주저넘은 소리를하가」 슈일은 눈에별이보이
 며 정신업서 엎다려져서 스지를 버등기나 용이히 일어나기 어려운지라 츠라
 리하는티로 맞기여등이 가하다하는 모양으로 감으니 업디려잇다 장좌성과

조병권은 놀이기를 마지키니 하며.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말노 하지 점잔 쳐 못하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신장우는 쌀사우스면서. 「여보게 점잔이 다 무엇 인가 이러흔씨는 금력(金力)보다 완력(腕力)이 체일이니라 이런놈은 주먹으로 단관을 허야지 항복을 하지 경우로만 말을 하면 되나」 「그관용서하게 티 단이 괴로운 모양까지」 신장우는 말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더욱 단사키누르며. 「이놈이 대답하라」 「나를이렇게 싸릴러이거든 주먹은 그만 두고 오빤원짜리 지점몽치로 싸려주오」 「이놈이 그리도 돈이야 금전은 못쓰겠 니」 금전이라도 관계치안소 「그러면 이놈 금전바다라」 하며 주먹을 들어 좌우뺨을 한번씩 친다 슈일은 「아이구」 소리치며 다시 말을 못한다 신장우는 엽헤노여 있던 슈일의가 방을 열고 그속에 가득이 드러있는 슈형과 슈표등을 함부로집어넘어 방바닥에 펼쳐놓는다. 「장좌성여기너오 노은 슈표중에 너네가 보중성든슈표도 펼경잇슬것이니 쳐져서짜져바리게」 장좌성은 남의얼굴만 도라 보며 겁을먹음고 감히슈표에는 손을다이지못한다 슈일은 가방에서 슈표너여 노은것을보고 일어나고자 몸을좌우로 버리스져거리는듯 신장우는 슈일의 허리에 걸어안자 슈일의두팔을 뒤으로틀어서 왼손에쥐이고 주저주저하고 손을 티이지 못하는 두사람을 눈흘겨바라보며. 「너네들은 웨이리어름」 하고 손을 잇나 어서슈표를 츠즈업시켜 넘겨말고 어서쳐너게 뒤스일은너가 다 담당 할러이니」 조병권은 점잔는체모에 넘오심히함을 넘겨하야 신장우의 손을 쓰

으러나리려한다 신장우는 손을씩리치고 더욱 슈일의 팔을부러져라하고 비트 러을나미 압품을이이지못하야 「아이고사사사 여보 너모이리지마오 너가죽도록 하여드리리다 녀너말고 노이주오」 「이놈네말다 듣기실라 너코흔놈은이 렷게하여서 후일스름서지라도 증계를 허야하겠다」 하며 흐트러진 슈표를 뒤져어리며 찾고있다. 슈일은 간신히 목소리를너여 「제발살려주오 너가죽도록 하겟다는티 웨이리하오 이팔을노이주오」 「그러면 너말되로 다드러이저그 러면 노이주지」 「그리하다는티 웨이리시오 하시라는데로 하오리다」 신장우는 비로소 슈일의팔을놓코 지리에나려안는다. 슈일은 얼골을 찡기고 간신히 몸을일어 방안에 허여진 슈표등을 두손으로 모으서 가방속에 집어넣고 황망이 세스름에게 인사하며. 「그러면 오날은 그저가겟습니다」 하며 일어스려 하는것을 신장우는 하인을썩짓다시 「감안이잇서 거기안저 악가는죽도록하겠 노라드니 아모말업시 간단하야? 우리가 청구하는티로 다 시형을하야 주고 나야지 이번에는 우리가너를 보너지니 할러이다」 눈을부릅뜨고 압호로와락 드러안지며 하는말이 다시또싸함을 하고자하는 모양이라. 「로형 하시말습 디로 드러드리기는 하겟소이다만은 악가부터 너모엇어 마저서 몸도압플뿐이 니라 심스가조치못히서 리약이하고 잇슬수가업스니 오날은 그저집으로 가야

한갓소 오허려여러분께 실례를만이 할엿소이다 용서하시오 그러면 장좌성씨
 는 이다음 이슴일후에 다시맛나뵈옵고 말씀할겓습니다」홀연 슈일애 괴석이
 슈심이짜인것을치 고기를드리우고 말로는모양을보고 신장우는 링소한다」만
 일 일후에라도 다시와셔 나엽다고 오날원수를 쥬인에게 갑흐려 할엿다가는
 그씨는 나가뜨다시 나와셔 오날숨씨를 또쓸터이니 정신치려」네 다시그리
 하리가 잇슴잇가」하며 문을열고 나오간다 조병권과 장좌성은 혼나지르되
 문서지니가셔 슈일을보니이고 들어오며 장좌성이 허우스며 오날은신
 군(申君)으로하야셔 잘 모면을향앗네 그러나 벌서져녀씨 되엿네그러 불이
 나치고술이나흔잔식 더먹지」하며 남포에 불을켜고 술상을 짐다리며 한
 잔씩 마신후에 신장우는 「자네들 감안이잇게 조흔것을 할나보여줍세」하고
 좃기속으로셔 구기여세엿던 슈지두장을 보이듯는다 조 「그것은 무슨조회가」
 장「무엇을가지고 그리하야」신장우는 혼장을짐어 퍼서본즉 김정연에게 빛
 쓴수표이니 최무지의 성명은 알수업다 두사람은 신장우가 어느틈에 그런수
 표를 훔치엿는지 서로보고 놀니기를 마지니한다 또 혼장을퍼며 세사람은
 머리를 혼테모르고 불이리에 쯤서히 드러다보니 보증인에 장좌성이라 할엿는
 지라 신장우는 벌떡이러나며 그수표를 손에들고 춤을추며 「올라」바로드
 러섯구나 만세 만세 장좌성은 수표추진것이 다행이실각은하나 포학한
 행동으로 억탈함을 심히마음에 좃치안케 생각할엿더라 그러나후스는 신장우
 가 담담한다함을 혼편으로 시원한마음도 업지니한다 「자」인제는 경스마
 싱겓스니 술이나먹고 부지동방지과박이나하세

제이장 懷舊(회구)

망々흔제상에 호을노너천비되어 혼스름의 골육지친도업거늘 하물며싸뜻흔이
 정(愛情)을 몸에받지못하는 슈일은 것천덜애 호을노 누어잇는 바회스돌과긋
 치치고적막한다 수일이 마 심덕에집에 부치여잇슬씨는 순이를 사랑하야 그
 음다운 음성과 부드러운손과 싸뜻흔마음을 혼선에맞고 지니일씨는 그질거
 음이 다시어나곳에 비할바이 업섯더라 슈일은 그러듯 사랑하는 순이로하야
 곱안히로도알고 또는즈기의 성명으로도알며 고단한 사람의신체로 어머니로
 도싱각하며 누의로도싱각하며 어머니로도알고 형으로도밋어서 순이흔스
 름으로 부모형데 천척봉우를 혼거번애 엿음과긋치 질거워하며 밋업게 알
 단란한마데 절거운 세상을 보니고조할앗더라 그런고로 이세상에 천박만인
 에 안히되는스름이 그수효 마히세여 말하지못할겓스되 즈기의 바라는마음
 과싱각하는바는 즈기의몸에 덕담함을 김히밋었슴으로 이세상에서 혼스름의
 순이를엿음으로 일만나무에 일시에 셋치됨과긋하야 것천들에 노여이슨 바회
 로도 물에젓고 안기에취하야 싸뜻흔봄희에 편안히 잠들어잇는것보다 그사랑

과 그정의 2 점 々 날아갈수록 더 할야 같게 애어나 곳에 경정하는 자 이 있어서 잠시 동안에 나의 안희를 세앗기를 손스 길흐면 뒤집는 것보다도 용이 할야스니 슈일에 그마음이 잇더 할야스리 오 할몸과 할마음을 모다 그스름에게 맞기여 조곰도 거짓함이 없든 스름이 할연변 할야 되적과 못치 비반 할고 타인에게로 깃거이 좃츠 2 는것을 목겨 할슈일에 마음은 더욱 잇더 할야스리 오 어렸슬씨에 골육지친도 업고 한담스름을 몸에 받지 못 할고 고단 할고 적막히 지낼씨의 마음보 다 더욱 살망(失望)과 원혼(怨恨)이 골수에 스 못 처 것철들에 노헌 바 회 2 서리 맛고 눈에 덮히고 그위에 찬바람이 음습 할야 살과 씨를 어이 는 듯 할고 동만 감동 할뿐이라 실노 슈일이 2 순이를 남에게 세앗긴 일은 비유 할 건디 남에게 잇 2 던 브비를 도로 세앗길 썩 안이라 그우에 다시 저기 2 2 지고 잇던 브비 저지 으 서 감이 되엿더라. 슈일은 이와 같은 원망과 혼이 2 가슴에 싸이여 할로 할시라도 이 줄수 업다 이고 뜻을 이저 바리고 이 할을 헛치고 저 할야 저기의 할고 저 할는 비이 안이로 되 억지로 이와 같은 죽음을 구 할야 홀독 할 힘동을 스스름으로 하라 그러나 슈일은 순이와 김중비의 심탁에게 할 할을 보복코자 할면 그스름을 죽점으로 공격 할야도 능치 못 할은 안이로 되 그와 갓치 협하게 일은 할고 자 할이 으 니라 널니 이 세상에 더 할야 할을 풀고 자 할이니 김훈밤 외로운 등잔 아리에 호을 노고 오히려 누어 전일에 지너던 회포를 생각 할 제 마다 눈물이 벼기를 적시이며 혼자 말

노「아」이렇게 너 2 속만 리우는니 보다 차라리 한번 죽어 버리는 것이 낫지 한번 죽어 버리면 만사를 다 이저 버리고 이런 근심을 안이 할터 인디 그런것을 목숨이 앓 2 운것도 안이 엿만은 죽지도 못 할고... 죽기는 쉽지만은 죽지 못 할는 것은 아모리 생각 할야도 너모도 원통 할야서 이 원통 할마음을 이티로 2 가슴속에 서리여 담아 두고 죽을 수는 업서. 너 2 돈이 만 으면 무어시 자미 잇슬고 남다려 니 말을 물어 보면 할 스름의 녀자 순이 티 신은 될 만 할다 고 말 할 것지 만은... 나 논 그 마음은 업서 제 일 돈을 만이 모을 생각도 업는디 한번 실망 할 마음은 다시 도로 길 보 비는 이 세상에 업서 그 보 비는 으 모리 생각 할야도 다시 도로 길 방법은 업서. 순이 2 지금 와서 죄를 스 할고 다시 부부 2 되 여서 살자 고 올고 스과를 할다 할도 리도 할 번 마음 이 변 할야 남의 물건이 된 순이는 결단코 이전 순이 는 안이 오 밧서 리 슈일의 보 비는 안이야 리 슈일의 보 비는 스년전에 잇던 순이 요 지금 순이 는 안이야 그 순이 는 다시 회복 할 슈 업는 순이야 으 모리 생각 할야도 련련 할망 할 스름은 순이야 이라 케 잇슬씨에 도 순이는 이 줄씨 가 업서 이저 지 2 를 안이 할여 그러나 잇저 못 할는 순이는 지금 김중비의 계집 된 순이 는 안이라 심탁의 썩 순이 2 스년전에 잇던 순이 2 그썩 순이를 할 연 변 만 다시 보 왓스면 너 가지 금 빚 만원 저 산을 모아 놓기로 이전 순이 는 다시 엿을 슈 업지 2 아 2 돈이 잇스면 무 엿을 할나 지금 잇는 돈이 비록 얼마 되지는 못 할지만은 스년전에 순이를 썩츠서

평양갓솔씨에 누수중에 있섯더면 : 아! 이와긋치 천스만념에 싸이여잇는
 슈일은 스스로니몸이 세상에잇슴을 세가지못한다 이렇듯싱각할제마다 부벽
 루아리에셔올며 쓰러져잇던 심력의설순의와 서강박용학의집 정원에서 소요
 (逍遙)하던 김종비의안히된 순의의 형용이서로 열키여슈일의 신변(身邊)에
 서 방황(彷徨)한다 슬푸다 슈일은 세상과서로 어그러진스름이라 나아가면
 사람의 피를마시고 들어오면 나의참조만 쓰리는도다 잇는곳에는 음풍(陰風)
 이 항상비회하며 백일(白日)을 능히 보지못하며 가고또다시 갈지라도 침침
 할장야로 오늘날까지 일천스백륙십일을 만나드리도 정다운친구의 얼굴을 아
 지못하고 스귀드리도 일즉이 설보다 더욱 단맛을 아지못하며 씻이피여도 봄
 날의 찻달한기운을 받지못하며 질거움이 잇셔도 등지고 깃거움을 아지못하
 며 길에잇셔도 곧바를 아지못하고 복이잇셔도 부르지만아는며 은혜가잇셔도
 누리지를못하고 할갓리욕에 사로잡히여 씻을일코 다만마음만 수구러이 할뿐
 이라 슬푸다슈일은 이와긋치 금전을탐야 맛츠니무엇에 쓰고즈음이요 슈일
 은 점々동업자스이에 나타나셔 그스름의 장리를 누가안이 주목호리오 그럼
 으로 슈일은 조과의분하고 원통한마음을 일반계상스름에게 풀고즈할야 잔인
 각박한행동이 혼두곳이안이라 그런고로 치무즈중에 원망을사고 혼을받는곳
 이 처처에성것더라 그럼으로 동업자스이에도 슈일의 심히하는 슈단으로 죠

곰도 치무즈에게 용서함이업슴을 과도하게 생각하는스름도 있섯더라 그러나
 김녕연은 호을노 깃거할야 강호장슈아리에 약한근스업슴을 스스로자랑한다
 김녕연은 오늘날까지 저축재산이 다만그러한슈단으로 능히만족다 하지못하
 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음투할방법이 잇슴을말하며 또는 그전례를들어서 슈
 일을세우쳐 그마음을 더욱 <강경하고 밍렬케한다 그러나 슈일은그말로인
 할야 잔인강박한 행동을능히 질기여함이안이라 사람의행할 길이나니요 그즉
 업이 싹할법률에 버셔지는 불법한일인줄도 모로미안이로되 임의나의 원통한
 설분을 이곳에서할기로 결심호이상은 어디까지던지 굿제이게 나아가자 결단
 할앗더라

데슴장

사년전 평양부벽루아리에셔 리슈일과흔가지로 눈물을흘니고 리별후후에 김
 중비에게로 출가호심순의의 소식을전호리로다 슝월십스일 몽룡촌 월항에서
 리슈일과셔로 슬푸게 작별후후에 순이는 스월초십일을 락할야 김종비에집으
 로 출가호였더라 항로밤스이에 슈일은 홀연종격을 숨긴후 심력의 혼집안
 으로말호면 도로혀 쓰리던물건을 써여바린것긋치 생각호았스나 혼편으로싱
 각호면 혼집에서 슈일을위할야 녀녀안이치못한다 그러나그부친 심력보다도
 또는 그보친모다도 순의의근심이 더욱심호였더라 순이가근심함은 다만바리

지못할남편을 헌신코치브린일을 뉘우치고 슬허할뿐 아니라 의탁할곳이없시고
 독혼 슈일의몸을싱각하야 그신상안부를 아지못함을 주야로근심하기를 마치
 안이한다 처음에는 분혼마음으로 잠시동안은 어티로코다 할지라도 멧철을지
 닌후에는 필연다시 도라오리라하야 은근이심중으로 초조이 손꼽아 기다리기
 를 마지아니할엿더니 맛츄니 그릿듯기다리던 마음은조곰도 호험이업고 하로
 가지니고 잇들이지니며 할달두달이 지니일스륙 인하야소식이 묘연하야지미
 순이는이에어르러서는 다만흔번이라도 다시만나보기를 주소로촉원한다 일
 시에 분기로인하야 어티로나아코다 할지라도 우리두스름에 구게미진언약은
 변치아니할겝거늘 지금에일이러서는 서로만나보기는 고스하고 종적사지 이
 제노아지 못하게되얏스니 도로혀 슈일을 원망하며 또노즈과의 실천함을 뉘
 웃치며 그부모사지도 다시원망한다 그러나 톨일흔 스일초십일은 점점박도하
 며 부모의명령은 거역하기 어려운터이라 좌우로결단하기 어려운몸으로 푸쥬
 에 들어가는 소에마음으로 일신을부모에 향는티로 맛기여두엇더라 그러나
 김히 잠들기전에는 잊지못하는 슈일의얼골을 망연하야 다시보기어려오니 비
 록가슴속에 무슴회포가 있다하기로 잊지능히 그스름의 속에사지동호리호
 을로 마음만티우다가 정히견티기 어려운씨에는 그부모가 아지못하는 들을라
 서 못구리도하야보고 소경에게 문복도하얏스며 무러본후에 그복즈(卜者)의

티답은 지금몇히스동안은 서로만나기 어려우나 멀지아니하야 그스름의 소식
 은 지필로하야금 원망하는뜻을 전하야오리라하는지라 순이는 소식을 전하리
 라하는말도 천지에업시 반갑게 싱각하야 하로가 십년코흔 싱각으로 아참이
 면 저녁에는 소식이잇슬가 기다리고 저녁이면 아참을 기다리며 문압해서 스
 름이차자도 그스름의 소식을전하러는가 체전부가지니여가도 후서그스름의편
 지를전하야 주려하는가 하는마음이 골수에박이엿더니 못구리도 헛된일이오
 관슈의점도 거짓말이라 세월이점점갈수록 나를썩짓고 나를원망하는 글스발
 할장도 보너지안이한다 만일니가 이스름을 다시보지못하고 이스름의소식을
 듯지못하면 죽기를밍세하고 니몸을 다른스름에게 허락지안이 하리라하얏더
 니 톨일흔 스일십일은 점점갓가와지고 그부모는 슈일의 잊지안이함을 오히
 러다히히 녀이여 슈히출가하기를 저촉한다 슬푸다 심지연약하고 미지못함이
 세상의 금전을싱각하던 순이는 드터여 부모가 엽헤잇서 선동하는말에 억이
 지못하고 처음스름을 녀어던지고 다시김중비를 싸라서 디례(大禮)를 평양에
 서 지니엿더라 순이는 슈일과 리별후에는 서로이그스름과 정이얼마침 김
 헛던일을 써다랏더라 순이는 슈일의 나아간후로부터 더욱그스름의 얼골이눈
 에발피여 아참이던지 저녁이던지 그스름의 형용만가슴에서 왕리하야 김흔밤
 에 고요할씨마다 풀속으로쫓추 슈일의스진을 녀어드려다보다가는 홀연눈물

이 스진을 가리우며 서로 향하여 말이라도 홀듯하다가는 홀듯스진이오 뒤답이
 업스면 다만 길게 홀숨짓고 손에 드렸던 스진이 기운 업서 무릅우에 써러진다
 만일 이 스름이 지금이라도 다시 정다운 소식만 전하여 줄것호면 집과 부모라
 도 다도라보지안이라고 그 스름을 좇츠가리라 생각하여 디례를 지니는날에도
 얼굴에는 성적하고 원슴당의로 초례청에서서 김중비와 이성지함의 큰례를일
 을써서지도 가슴속에는 니가 김중비의 안히라하는 마음은 조곰도 업고 다만 부
 모의 명령을여이기어려와 이러하게되였스나 외양으로는 비록허락할것호출지
 라도 마음서지는 결단코 허락하지안이라고 결심하였더라 이와코치 생각하
 셔에 순의의 가슴은 얼킨실마리와코치 어지러웠더라 리수일과 리별후후에 이
 렷듯잇지못하고 생각하건만은 자과의 전일망녕되이 돈에눈이 어두었던 일을
 뒤웃치고 계집스름의 형실을직히여 남녀간정당할 련의를 온전히홀마음은 전
 혀업지안이라고 항상동쪽의늬음씨가 코으리에 써나지못하여 슈일을스랑하는
 마음은 간절하되 한편으로는 지물을 욱심하는 마음도적지안이라고 그 부모의
 권하는바도 심하얏는고로 홀결코치마음을 결심치못호 으녀자의마음으로 죄
 우를모다 잊지치못하고 형례하는날은 당하였더라 이날과이밤에 김중비의집
 안과 순의의부모는 그질거움이 비하여 형언키어려우되 호을노 순의의마음은
 큰죄를지고 감옥(監獄)안에 몸이잇는것호하여 지금에라도 천벌이 이마우에

나려지는듯하여 순의의마음은 임의리슈일의게 허락하얏스나 다시 김중비라하
 는 남편이 잇지못호일은 분명하겟거늘 공교히 이늘부터 몸은 김중비에게 의
 탁하고 마음은 멀니 수일에게향하여 잊지못호다 디례를일운날부터 순의는디
 옥 자과의허물을 뒤웃치며 비록정식으로 일우엇슬지라도 김중비에게 마음을
 허락하는 남편으로는 으지못호다 김중비는 그안히된 순의를스랑하기에 정신
 을일을지경에 일으릿고 그안히에게 향할마음은 전력을다호였더라 순의는 날
 로 그 남편의 사랑을 점점더이름을써마다 심중에잇는 스름의형용은 점점보기어
 려워지고 마음은더욱 ~ 질겁지못하여 그 남편 김중비는 혼났고계적 남편에게 지
 나지못하게 생각하나 김중비는순의의 욱호흔얼과 썩호흔티도에 신정에잇
 거움이 었더타하리오 그러나 순의의 항상결집지 못호마음은 김중비로하여금
 불업는화로를 응위하고 잇슴과코호되 그를능히 써다지못호고 다만순의의 미
 식을담하여 거의밋쳐엿는 스름이라 오히려 그심중은 써다지못호고 본디천성
 이 그러홀인가하여 심하못지도 아니호였더라 이렷듯 김중비의 사랑을받고잇
 스되 순의는 조곰도마음이 움직이지안이라고 그마음을 밧지안이라고 도로허
 그곳으로 출가호일사지 겁히속으로 뒤우치고 탄식하기를 마지아나호며 비록
 몸을 잊지호잘못으로 이곳에 파못치게되였스나 나의마음과 나의몸은 이곳에
 허락지 안이호리라호고 허를써돌고 밍서호였는고로 좌우로칭탁호고 김중비

에게 몸을 허락지 안이하기를 스스년동안이나 저니이되 그곳에먹은마음을 온 전히 일우엇더라 그럼으로 김중비는 심중으로 항상양양불락할찌가 업지안이 하되 항상수심과 병적의얼골에 기일날이 업슴을보고 순이의설거워할것은 모 다하여유며 하고차하는것은 임의로하게 맞기여두어 아모조록 그순이의 환심 (歡心)을 스고차한다 날이갈수록 순이에 마음은 점점질첩지못하며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하는마음은 리슈일의 몸의평안함을 원함이라 지금에일으려서 는순이의 더욱뉘우치는마음은 이렇듯괴로울줄을 전혀서지못함은 안이로 되 무삼일로 이집안에 들어와던고하며 자기를 천망한다 괴괴적으로 남편을 섬기고 흐물건과긋치 방안에노여이서 너의몸을 니가스스로 속이고 남의안히 된본의가업시 흐로롱속의 들어있는 시의몸과 곱하야 다만 높히광활호 할날을 바라볼뿐이로다 처음에바라던 금강석반지는 무엇에쓰며 너스어 성할호는 지 산은 무엇에유익하며 이목의소호를 능히다할겟스며 스령이 압혜죽스한건만 은 스스년이리로 가슴을티우는 생각이야엇지 능히곳치리오 다만싱각하는 스 름은 디동강변에서 종적을일허바린 슈일의형용이라 우연이 박용학의 집에서 일골만 보았슬뿐이오 또호소식은 아지못하며 보지못하여 티울씨에 마음보다 그러듯 퇴봉전별호후에 마음은 더욱이 구곡간장을 녹이노도다 삶에도싱각 지못호엿더니 의외에이날 수일을 서강에서 만나봄이 순이의덕이 터지는것

갓흐나 마음에싸인말을 임의로호지도못호고 하여지니 진실노이는 스년동안 을 밥에유리엿든 스름으로호여금 음식을보고 먹지못함과 갓흐미라 경성서문 밧링동김장연의집에 몸을붓치여 잇다호는말은 정희에게 그늘들엇스나 그잇 혼날로 다시멀니 평양으로 내려왔슴으로 김중비의 눈을속이여 몸소가셔보지 도못호고 편지로 가슴에잇는 회포를말호즈하니 동호도자서이 아지못호니 엿 지그스름에게 소식을전호리오 마음은오백오십리되는 식문밧링동잇는 리수일 에게 향하여잇고 몸은김중비에게 붓치여잇스니 초조호고 밧철것갓흔 마음은 잠시도 지리에편안이안지 잇슬때가업고 심스를정할슈업스면 공연이 벼루집 을향하야 눈물에어리운얼골노 길고길게 슈일을향하야 편지를쓰고있다 그러 나 그편지는 써서손에들고도 어티를향하야 능히붓치지못호고 공연이 방으로 말로로 들어왔다 나왔다호며 한숨스이에 그편지는도로 솜과긋치 피여바린다 김중비는 가장욕심호든 심순이를 마자다가 안히를슴앗스나 그안히는 다만일 홀만 안히요실로안히의 정은아지못호며 항상근심에 싸이여보이는 순이의얼 골은 스스년이지니도록 쾌락호형용과 깃거운모양은 한번도보지 못호엿스며 평양이라호는곳은 저고로물석이 조흔곳이오 하물며 은희의 주인이되야 누안 이홀양호리요 저로연회도잇고 원유도잇스며 노리가잇슬씨에는 반다시 기약 이잇는법이라 김중비는 순애의 지미잇는 얼골을보지못함을 호호여 저기의

은화환애정을 뒤에 개항하여 잘못이 없더니 호로는 평양셔 일등가는 기성으로 유명호 스창동스는 옥향이라 호는 기성과 서로 추파송정하여 호로 스이에 김히든정이 갈노버히려하여도 능히 떠러지지 못할스이에 일으러더라 그리고 김중비의 순애에게 향할애정이음이 옥향(玉香)에게로 향하였스니 순애는 그일을 은근히 아지 못호는 것도 안이로되 진짓김중비가 옥향을엇어서 침혹하여가난것을 오히려 다힘이역이여 아모조록 김중비는 멀리호고 옥향에게로 정을옴기게 호고 조힘을쓴다 그럼으로 김중비의 마음은 놀이갈스록 점점옥향에게로 향호는 마음은 만아가고 순애에게 향호는 마음은 열버간다 그러나 순애에게 마음이적은문 결단코 순애를스랑치 안님이아니라 순애가 김중비의 향호는 마음은 조곰이라도 반가이받지 아니호는연고이니라 순애는 슈일을위호야 몸의편안함은 괴도호는 뜻으로 집안사람이 모다 김히 잠이들고 계견지성이 들리지안니호는 야밤삼행에 호을노일어나 수족을정어씻고 모란티아티 영명수(永明寺)압해잇는 부도(浮屠)압해 일으려셔는 정안슈호그릇 떠다호코 호찰동안을업덕여 심중소원을 충족호였다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정성이 감동될이런지 우연이 그스름의형용은 잠시만나보았스나 오히려이몸을 원망호는 그스름의 마음은 풀리지아니호고 노괴가 가득호는으로 자괴의얼골을 흘기여보던일은 오늘날까지라도 실상자괴의 참된마음이 이러함은 자서히아지못호고 그러

릇 분로호는 마음을 엇지호야 돌나리요 서로종용히 만나면 목숨을 싣트라도 그스름의 압해서 심중스름 설과호련만은 그괴회는 다시엇기어렵고 다만발아는것은 영명스붓쳐스남의 자비호신 은혁으로 이마음을발게 살피시고 도아주시면 그스름의 지금마음을 도로갈가호여 그후로는 더욱 부도압해 업티여촉원호기를 호로도괴으르지 아니호고 비가오는날이나 눈이오는날이나 바람이부는날이나 추위가잇던지 더위가잇던지 조곰도스양치 아니호고 부도압해 정성드리기는 호결호치호였다라 순애는 다시슈일을 생각호써마다 부벽루아리에 서슬파리별호던날을 더욱잇지못호다 다시싱각호여 불지어다 허마다 호번셔도라오는 숨월십스일은 그날이도라올적마다 순애가숨은러지는것호고 순애뒤웃치는 싱각은 더욱셔롭도다 「십년후 숨월십스일밤이라도 너의눈물노 이달빛을 호려노을터이니 이달이달일 호리거든 리슈일이가어나곳에서 너를원망호고 오날밤호치 눈물을흘니고 잇는줄이야다고」 귀를가리고 마음으로 싱각지아니코자호나 공연이그말소리는 귀에올니며 드러오는것호고 그모양이가슴속에 스진박인것호치 눈압해나타는다 순애는숨월 십스일을 당호제마다 과연 달빛이 흘여지는가 시험호여본즉 그스름은 어느곳에서 전일말과갓치 올고 잇지를아니호는지 달빛은변호지 아니호다 그스름이 이제는이몸을 원망도아니호고 이몸을무이 녀어는마음도 업셔지고 전히이몸의 싱각은이져바리

였는가 만일 그러면 지금은 어나곳에 있는가 하여 마음을 수구러이하기를 혼
두번이 아니라 이놈은 순애가 리슈일을 리별후내번지 솜월십스일을 당
항앗더라 아참부터 청명항던일이가 오후에일이러는 하늘에 구름이 덮피고 조
금씩씩사로 부는바름은 비록 조춘천의라 할지라도 심히음렁흔들이라 순애는
다른놈보다 일년년에 이날을당하면 더욱심스가 산란하여 진정기어려운놈이니
순애는 압뒤에영창운을 구이듯고 몸에는 비단옷을걸엇고 자리에는 비단요
를 쓰라잇스며 침々향방안에 호을노누어 천정향향여잇다 혼집안 사주인으
로 시부도 그곳에잇지 아니하며 야심스러운 시누의도 잇지안코 올고못치는
어린아히도업고 다만사오십먹은 로파흔사름과 안팎그로 잔심부름흔는계집
아히 두사름과 사나의하인 혼사름을 두엇스니 제반일을 모다여러하인이 능
히다하고 순애는 항로사동안 일년사동안을 모일도 할는것이업시 편안이잇
셔들어오면 금의옥식에 싸이여잇고 나아가면 마차인력거가 등뒤항며 혼마
蹄의말이 임박게져러지면 모다셔로듯도들으며 하는일은모단사름보다 칭찬
항여 제상에무산 부족함이 업는몸이 되엿더라. 제상에서 남녀를물론하고 원
항고 바라는것이 이에서지나지 못함인가하여 스스로호심함을 이기지못항엿
더라. 슬푸다이몸이 오늘사 이디위를 누리고자하여 전일에 미경력호 철모르
는 마음으로 브라고원항고 부러워항다가 다시엇기어려운 마음가온蹄의 사름

을 일엿도다 그러나 이몸이 다섯히전에 바라던일은 극하 질거우리라 항엿다
니 오날날일으러셔는 오히려극히 슬픈씨를 뿌리미되얏도다 이에일으러셔순
이는 비로소 슈일의 전일씩짓던말이 금석(金石)보다 더함을 써다랏더라. 이
에일어셔는 혼갓 마음만 수구럽고 다시보기어려운 스름을 기다리고 잇스니
마슴은 더지고 혼숨은 눈물과 혼마지로 스러져 나을뿐이라 근심을가슴에 싸
고 누어잇던몸을 벌떡일어 화에씨인 스름조차 영창문을 열어 쟁기고 디동강
홀으는물을 향하여 바라보니 나무마지에는 셋봉우리 마발곳에 항게 담안에
셔사잇는 미화는 장초웃고자 항것만은 초춘에 찬비를를젓츠 더피어나려오는
눈은 눈압해보이는곳은 모다은제계를 일우엇는디 지정하여 브라보는곳은 업
스나 망연히셔서 솜월십스일된 이놈을 생각함에 가슴속에 무흔흔 감동이 열
기여일이는다. 이색에 김중비가는 은형에서 퇴스항야 도라오는길에 옥향을 츄
즈보고 저물게야 짐으로도도라오나 적々흔 큰방안에 호을노문을열고 정신업시
밧곳을 넘어다보던 순이는 김중비가 도라오도 아지못항고 셔셔잇는디 혼연
뒤으로서 억기를 두손으로 싹뭇드는스름이 잇난코로 잠작늘넘어 뒤으르고키
를 돌니여보려홀즈음에 화로슈니음식이 촉비항난것을 맛흐미 이날의심업난
김중비라 순이난 기운업난 목소리로. 「인제오심니가」 「아췌어 아슴푸루흔늘
이겨울날고쳐추운걸」 항며 김중비난 아리목으로 내려가 오밧해 손을넋고셔

서잇난 순이를 쳐다보며。「술잇거든 혼잔대 워다 주오 써싯 혼은 주나 좀하고」
 순이난 디답도 아니하고 문을 열고 마로로나 마려 호난지라 김중비난 벌떡일
 어나서 순이의 손목을 붙들고 아리사목으로 내려오며。「추운날 손슈는가 할것
 업시 하인을 불너서 식이구려」하며 초인종을 불너 하인을 부른다 순이난 반갑
 지 아니호 괴식으로 손목을 씌을녀 아리사목으로 내려오며。「이건 왜이리셔요
 손목노셔요」압픈데「김중비난 못드른체하고 다시 팔을 버려서 허리를 세어으며
 「그제여보 엇진일노 몇히를 두고 보아야 호로도 얼골을 폐일날이 업시 청년과부
 못치 슈심이 얼골에 가득하여잇스니」몸을 쉴녀여 노려온 순이난 거의 쓸어질
 번하다가 보료우에 털쳐주저은난다 김중비는 뒤으로 도라온지며 두팔로 순이
 의 마는 허리를 짚주어 잡고 얼골은 순이의 허기 넘어로 넘기여 두코가 서로마조
 닳도록 순이의 얼골을 정신업시 드러다 보며。「얼골이 암만하여도 전과 달는
 너 마노라에게 호난것이 정답지 마이히셔 그리호오 정말 무슨 병이잇셔 그
 러호오 무엇이던지 마음에 불합할일이 만일잇거든 너외간에 말을 하여 주어야
 호지은소」순이난 남은 보게 남편이라 호지만은 즈그난 호을노 남편으로 칭
 각지은이 호난 김중비 마노리라 불을 제마다 스스로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
 이 불평호거늘 한가지로 몸을 부티치고 얼골은 티인것이 더욱 무섭고 실인성
 각이 조금도 진정키 어려운지라 두팔로 김중비의 가슴을 썬멜치고 김중비의

압흔 버셔나고즈 이를 쓰며。「망척호게 이게 무슨 짓이요 오날은 엇져서 연어
 썬보다도 일죽이오셔 사이고약을 부리사 오 옥향이 다리고 호던짓을...」호
 며 몸을 썬어나오려호나 스나의 힘을 엇지당호라오 이씨에 지겟문밖그로서
 하인이 불으는 소리에 드러오는 발츠최소리가 들니는지라 김중비는 하인이 들
 어음을 보고 홀일업셔 안앗던 손을 푸러놓는지라 순이는 그물에 버셔는 식의 칭
 각으로 얼뚫일어셔 사 웃간으로 멀썬이 나아가안는다。 지겟문을 펴져 열고 계
 집하인이 들어오며。「불너계심닛가」「영감잡슈시게 술두어잔만 데워오너라」
 호고 춘이는 웃간영창유리로 빛갓마당에 싯송이 못치 썬러지는 눈사람을 턱을
 고이고 안져서 너여다보고있다。 허는 임의 서산에 넘어가고 방안은 싯압해가
 득히 싸인눈빛에 방은이 빗초여 아죽도 어두운것지은이호다 김중비는 순
 의에게 무은을 당호고 무료호며 썬호 분호야 아모말이 업시 보료우에 길게 누
 어 두손으로 머리를 고이고있다。 계집하인은 남포에 불을 썬서 방은으로가지고
 들어오며 하인호아는 술상을 받들고 드러와 김중비의 압해 들고셔사。「영감마
 님 약슈상디려왔습니다 일어납시요」김중비는 감앗던 눈을 번져뜨며。「응술
 상이나 거괴노아라 그러나 이마남은 어디가섯니」「저-웃간에 계십니다」김
 중비는 몸을 기우려 순이를 너려다보며。「여보이리드러오오 추운날 웨웃간에
 혼조은젓셔」순이는 부르는 소리에 샘작너정신이 도라와셔 마저못호야 아리

스간으로 도라온다. 김중비는 하인을 보며。「너의 들은 밧게 나가 있거라 있다 부르거든 드러오게」 하며 계집하인들을 밧고로 너여보내고 다시 순이를 치여 다보고。「여보술혼잔 짜라주시오 마누라손으로 짜른술혼잔 먹어봅시다 그려 외국스름들은 으레히스나허가 저녀에 집에 도라오면 저역밤에 반주는 그 온히가 상머리에 온저서 짜라주는 법이 연만은 아즉조선은 그런저미를 알지못 하고 만일 저의 마누라더러 술을 좀치라 하면 공연이 쓸수를 부리면서 흥히라 망치 허라 너가 석주가 인가 흥면서 살풍경을 부리지 그러나 우리 마노라 하는 학교출신 이니 사그렇치는 은이 흥겅지허사사」 순이는 마지못하여 술상업혜는 온자잇 스나 귀먹은스름과 두치 못들은 체하고 턱을 고이고 얼골은 옷간을 향하여 있다 김중비는 순이의 뒤답은 이음을 갑사히역이여 손을 들어 순이의 여기를 잡아 몸을 도로키며。「여보남은 이를 써서 말을 흥는디 너쉬여라고 웨디답이 업소 참야속하구려 어서술이나 혼잔 짜라주소」 순이는 턱괴엿던 손을 기운업시들어 쥘전자를 잡아다가 술을 가득이 짜라놓코 역시 입을 버려 말이 업다. 김중비는 짜라노은술을 마신후에 순이의 몸을 흔들며。「여보글세 뒤답 좀히요 별은 간에 무스성이 낫소 아아너가 옥향이 흥고 갖가이지낸다고 쇠기가 나서 그리 흥저 그것도 뒤죄요 마노라가 이렇케 몰풍정하네 나를 뒤접하니 사 엿다가 마음을 못치 겿소 자연이 다른 계집이라도 보고심은 생각이나는 것이 지 작금이 라도 마노라

가 너게 잘만 구려 쥘면 옥향이 다 무엇이요 월궁항아가 오들리도 소용이 업슬 터인디」 순이는 마지못하여 말흥는디 답으로。「너그외 옥향이니 금향이니 굿 가짓것을 너가외 말을 하오 너런성 본리이 모양이라 그리 흥지요」 「런성이 그려 흥면 전에는 그닥지 온트나 날이 갈수록 점사더하야 가니 런성도 변하야 가는 게지」 「……………」 「또벌써 저모양이야 간신이 말흥마디 흥고는 도로고기를 느러트리고 근심이야 여보술이나어셔 다짜르오 화나는디 술이나 잔씩 먹어줍시다」 바람에 날니던 눈사발은 임의긋치고 하날에 덥히엿던 구름은 모다 흐터 져는디 승월십사일 밝은달은 동력에서 돛기 시작하더니 흥연디 동강상에 놓히 셔서 잔사흔물결이 금비늘이 올닝거리며 저녀여가는 비에서는 노젓는 소리가 켜겨사사 들니인다. 김중비는 수습비술에 흥치가 도도하야 강편으로 향하여 잇는 영장문을 모다 열어적기고 눈아리 보이는 강석을 바라보며。「여보 마노라 여보순……………」 순이씨 이런경치가 어디잇소 술아니 먹고 무엇 흥겅소 그러나 나만 혼 자 먹으니 사 재미가 잇섯야지 마노라도 혼잔 먹구려」 흥며 술을 가득이 부어 바른 손으로는 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순이의 여기를 잡고 원한다。「아이고 너가 술이 무엇이야 녀편네도 술먹나오 남을 죽여 노으려고 그리시네」 여보 다른 정은 아니 들을 지언정 술혼잔 먹으라는 것을 그 청도 못듯겅다 아서라 이놈은 야속지은소」 순이는 심이 원흥에 이이지 못하야 술잔을 밧다가 지고 입만 디엿다가 다시 도로